우리말 어휘의 시간을 읽다

끄숙이다

오늘의 뜻에서 옛 문헌까지



오늘의 뜻

끌어당겨 아래로 박다.

문헌의 첫 기록

20세기

수록 용례

1개

수록 내용

뜻 · 표기 · 문헌

사전의 뜻풀이, 옛 표기와 문헌 용례를 함께 읽는 자료입니다.
모든 뜻과 세기의 기록을 수록했습니다.

우리가 알고있는 '끄숙이다'의 뜻

국어사전 뜻풀이

사전에 수록된 오늘날의 뜻입니다.

> 끌어당겨 아래로 박다.

끄숙이다의 표기 연대표

표기의 변화와 공존

끄숙이다의 표기를 세기별로 모았습니다. 같은 세기에 여러 표기가 함께 쓰이기도 했습니다. 연대표는 모든 문헌 뜻의 기록을 모으며, 연결된 용례는 문헌 영역에 표시된 뜻을 기준으로 읽습니다.

표기 · 근거	15세기	16세기	17세기	18세기	19세기	20세기
끄숙이다 사전 표기 요약	—	—	—	—	—	●→
ᄭᅳ숙이- 문헌 수록 표기	—	—	—	—	—	●→

연대표의 근거와 읽는 법

- **사전 표기 요약**: 사전의 표기 변화 요약입니다.
- **문헌 수록 표기**: 세기별 문헌에 함께 실린 표기를 더한 것입니다.
- 점이 없는 시기에도 이 말이 쓰였을 수 있습니다. 표시된 세기는 자료에 기록이 남은 시기로, 낱말이 생기거나 사라진 때와는 구분됩니다.
- 점은 문헌 영역에 표시된 뜻의 해당 세기 용례로 연결됩니다.

시대별 주요 표기 모아보기 1종

사전의 표기 요약과 문헌 수록 표기를 모았습니다. '현재'는 오늘의 표제어이며 역사 세기와 구분합니다.

- 끄숙이다
  20세기현재

원자료의 전체 표기 목록 2종

ᄭᅳ숙이-, 끄숙이-

ㄲ숙이다의 어원과 변화

이 말은 어떻게 달라졌을까

사전의 어원·변화 설명
소제목은 읽기를 위한 편집 안내

옛 표기와 등장 시기

‘고숙이다’는 20세기부터 나타나 현재까지 이어진다.

말의 구성과 어원

‘고숙이-’는 잡아당기다를 뜻하는 ‘끌-’과 앞으로나 한쪽으로 기울게 하다를 뜻하는 ‘숙이-’가 결합한 것으로, ‘*끌숙이-’에서 ‘ㅅ’ 앞에서 종성 ‘ㄹ’이 탈락한 형태이다.

표기와 소리의 특징

20세기에 ‘ㅆ숙이-’와 같이 이전 시기의 된소리 표기가 반영된 형태가 나타난다. 현대 맞춤법에서 된소리는 같은 글자를 반복하여 적도록 함에 따라 ‘고숙이다’로 표기하게 되었다.

문헌 속의 ㄲ숙이다

전체 용례 1개

모든 뜻과 세기의 문헌 용례입니다. 원문, 현대어 풀이와 출처를 함께 확인하세요.

20세기 ㅆ숙이- 용례 1개

이 문헌 묶음의 표기 전체 보기
ㅆ숙이-

출처 1933 조선일보 6월 23일 석간 3면 용례 01

문헌 용례

주먹과 발길이 왓다 갓다 하는 중에 막봉이는 도적의 상택이를 움켜쥐어 아프로 ㅆ숙이고 한 주먹으로 등쓸기를 우리는데 도적은 두 주먹으로 막봉이의 량편 갈비를 쥐어질럿다

이 용례에는 별도의 현대어 풀이가 수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 세기 분류·표기·문헌명·현대어 풀이는 사전 자료 그대로 수록했습니다.
- 문헌의 연대와 세기 분류가 다른 경우에도 사전에 수록된 구분을 따릅니다.
- 용례 수는 이 사전에 수록된 예문의 수입니다. 당시의 실제 사용 빈도와 구분해 읽어 주세요.

끄숙이다의 보충 설명

‘끄숙이다’는 홍명희의 에서만 발견되는 것으로, 홍명희가 만든 단어로 추정된다.

끄숙이다 관련 낱말

끌다

끄숙이다의 참고문헌

사전 편찬 참고자료

별도의 참고문헌 목록은 수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료 출처

이 자료는 ‘단어의 역사’의 낱말 페이지에 수록된 사전 자료를 바탕으로 구성했습니다. 원문과 현대어 풀이, 주석과 문헌명은 원자료의 표기를 따릅니다.

용례의 수는 이 자료에 수록된 예문의 수이며, 당시의 실제 사용 빈도를 뜻하지 않습니다.

history.wordrow.kr · 끄숙이다의 뜻과 역사